

담양 면앙정의 건축형태

-호남지역 건축의 지역성 형성에 대한 소고-

김동욱

(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1. 머리글

경치 좋은 곳에 누각이나 정자를 지어 주변을 감상하고 휴식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사회 지배층 사이에 널리 퍼진 유행이었다. 16세기 이후에는 주로 선비들이 휴식과 공부를 목적으로 지방 여러 곳에 수많은 정자들을 세웠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졌다. 선비들의 정자는 대개 정면 3칸 규모에 실내 일부에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는 벽면이 개방된 마루를 두어, 온돌방을 공부하는 서재로 쓰고 개방된 마루를 휴식하며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때 온돌을 꾸미는 방식에 따라서 정자의 평면이나 형태, 공간의 구성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즉, 온돌을 측면 한쪽에 두거나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기도 하고 또 한 복판에 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선비들의 정자는 조선시대 건축이 갖는 다양한 문화적 특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었다.

호남지역의 선비 정자는 평면 구성이 독특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정면 3칸 규모의 건물 한 가운데 1칸의 온돌방을 두고 나머지 실내 바닥은 마루로 하고 사방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자는 호남 지역 전체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경상도 서쪽 지리산 인근 지역이나 충청도 남쪽까지 확산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호남의 문화적 중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담양이나 나주 일대는 이

런 유형의 정자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호남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운데 온돌방을 둔 정자의 평면 형식은 영남이나 호서, 경기 지방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역적 특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면 호남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정자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런 특징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왜 이러한 특징이 호남지역에서 나타났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정자라는 건물이 창건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부족하고 또 건축 과정이나 특징을 알 수 있는 문헌 기록도 좀처럼 전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담양에 있는 俛仰亭은 16세기 호남출신의 대표적 文臣인 宋純이 고향에 세운 정자이다. 송순은 일찍부터 중앙의 주요한 관직에 있거나 전국 각지의 고을 수령을 지내는 한편 국문 가사를 비롯한 많은 시를 지은 문인이었다. 이미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향에 정자 지을 계획을 세워 10년 후에 작은 집을 지어 그 당호를 俛仰亭이라고 했으며,

* 본 연구는 '99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한 가운데 온돌방을 둔 정자를 호남지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정의한 기존의 문헌으로 박연근, 「누정건축의 조사연구」(문화재연구소, 1995)와 김봉렬, 「앞과 삶 공간」(발언, 1999) 등이 있다.

다시 60이 되었을 때 이 정자를 크게 개축했다. 정자를 개축했을 때는 송순과 친분이 있는 당대 명사들이 모여 여러 시문을 지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는 건물의 특징을 자세히 기술한 奇大升이 지은 「俛仰亭記」도 있다. 이 건물은 정유재란 시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그 후 송순의 후손이 옛 건물 자리에 정자를 새로 지었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면양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실내 한 가운데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바닥이 모두 마루이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호남지방 정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은 창건 당초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며, 개축 과정의 기록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면양정의 건립과정이나 건축형태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이 지역 고유한 정자건물의 출현이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한 가지 기초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면양정의 건립 과정과 건축 형태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호남지역 고유한 정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약간의 시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1장에서는 면양정의 연혁을 다루고, 2장에서 「면양정기」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송순 생존시 면양정의 건축형태를 추정하고 3장에서는 현존하는 면양정의 건축형태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갖추어졌는지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면양정과 같은 정자 유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호남지방의 한 가운데 온돌방을 둔 정자에 대해서 기존의 조사, 연구에서는 그 온돌방의 명칭을 ‘中齋室’로 명시하고 있다.²⁾ 여기서 재실은 공부하는 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온돌방의 기능과 일치하는 어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운데 온돌방을 기존 연구에 따라서 중재실이라고 호칭하고 이러한 유형의 정자를 편의상 ‘中齋室型’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면양정의 연혁

송순은 潭陽府 錡谷村에서 태어났다. 이미 여러

대째 이곳에 정착하여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있었다. 27세 되던 1519년에 급제하여 이듬해부터 중앙의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입사 초년에는 예문관, 승정원 등을 거치면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였다. 32세 되던 1524년에 모친상을 당해 고향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시묘 살이를 하면서 이 때 장차 면양정을 지을 땅을 샀다. 그 위치는 기곡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霽月峯 남쪽 언덕 위였다. 다시 복직하여 세자시강원, 홍문관시찬등 중앙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이 시절부터 일상 주변사를 소재로 한 많은 시를 짓기 시작했다.

1533년, 41세가 되었을 때 金安老의 미움을 사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이후 1537년(중종32), 다시 관직에 불려갈 때까지 약 5년간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이 때 전에 땅을 사 두었던 제월봉 아래 정자를 짓고 이름을 면양정이라고 했다.

정자를 짓고 나서 그 정황을 우리말 가사로 이렇게 노래했다고 전한다.³⁾

10년을 경영하여 초가 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여기서 10년 경영이란 집터를 사고 나서 꼭 10년째가 되었음을 말하여, ‘초가 삼간’이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실제 초가의 소박한 집이었다는 견해와 이를 단지 시적인 표현으로 보고, 창건 시에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춘 집이었다는 견해가 있다.⁴⁾

다시 홍문관에 들어간 송순은 이후 중앙 관직도 지냈지만 지방 수령으로 더 많은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경상도관찰사(48세), 전라도관찰사(50세), 한성판윤(51세), 광주목사(51세), 개성부유수(55, 57세), 선산도호부사(60세) 등이며 그 사이 두 차례 중국에 사절로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왕성한 詩作을 했다. 특히 지방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름난 정자를 찾아 시를 짓고 경치를 감상하였다. 또한 전라도관찰사로 있던 1542년에

3) 「청구영언」에 실려있는 이 가사가 과연 송순이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문학계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송순의 작으로 보는 데 의의가 없는 듯하다.(鄭益燮, 改稿湖南歌壇研究, 민문고, 1989)

4) 鄭益燮, 「改稿湖南歌壇研究」(민문고, 1989,) p.171에서는 본래부터 초가라는 견해이고,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국학자료원, 1997) p. 273에서는 “규모도 웬만큼은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中齋室’의 용례는 金東洙, “湖南地域 樓亭調査研究”(1)(1985)에서 처음 보이고, 이후 호남지방에서 발간된 몇몇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和順樓亭集』, 和順文化院, 1997)

는 호남 일대 명승지와 유명 정자를 두루 섭렵하고 시를 지었고 특히 외제인 梁山甫가 瀟灑園을 짓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당대 이름난 문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가진 것도 이 시절이었다.

송순이 선산도호부사를 맡고 있던 1552년에 면양정은 크게 중창되었다. 이 해에 담양부사 吳謙이 면양정을 방문했다가 건물이 퇴락한 것을 보고 수리할 것을 권하여 건물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송순 나이 60세였으며 널리 교류하는 인사가 많았다. 건물이 완성되자 高峯 奇大升이 기문을 짓고 林白湖 등이 시를 지었으며 이후 면양정은 인근을 지나는 문사들이 반드시 들러보는 명소가 되었다. 건물이 지어지고 송순이 면양정 3수를 지었는데 退溪 李滉이 여기에 차운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로 송순은 때때로 관직에 나가고 많은 기간을 고향에서 지내며 정자를 찾는 방문객을 맞았다. 그 후 1562년 나이 70이 되어 기로소에 들어가고 76세 때에는 잠시 한성부판윤에 제수되고 품계가 자헌대부로 올랐고 다시 77세에는 의정부우참찬,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어서 나이 87세가 되었을 때 면양정에서 급제한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回榜宴을 치렀다. 「俛仰集」의 年譜에 의하면, 이 때 鄭澈, 高敬命, 奇大升, 林悌 등 당대 걸출한 문인들이 잔치에 참석했는데 밤이 깊어 송순이 약간 취기가 있어 溫室 즉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정철 등이 공을 가마에 태워 모시었다고 한다. 이 일이 나중에 과거 시험의 시 짓는 제목이 된 유명한 일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3년 후인 1582년(선조15), 송순이 죽었다. 이 때 나이 90이었다.

송순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97년 정유재란에 면양정은 병화에 소실되고 선생이 여러 선비들과 함께 읍었던 여러 편액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건물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호남 인근의 여러 인사들이 정자 터를 방문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면양집」에는 정자가 있던 빈터를 방문해서 옛 건물이 있던 자취를 읊은 몇 편의 차운을 싣고 있다.

정자가 다시 지어지게 된 것은 소실되고 57년이 지난 1654년(효종5)이었다. 이 해에 와서 후손들은 송순과 교류하면서 면양정에 와서 지은 시를 다시 한데 모아 「면양정잡록」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자도 재건한 것이다. 정자 재건 후에 역대의

담양부사나 전라도관찰사들이 건물을 방문했다. 면양선생 연보에는 담양부사로 있던 鄭光績이 재건 과정을 언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

‘공께서 생존시에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나 죽은 백년 뒤 해마다 추석이면 반드시 이 정자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으므로 자손들이 제사를 봉행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에 정자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 당시 담양부사가 옛터에 올라가 보니 붕괴된 기왓장 뿐이었다. 서글픈 마음으로 송가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하늘이 만든 이 좋은 명승지를 오래도록 황폐해둔다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내가 비용을 협조할 것이니 그대들도 협력하여 속히 새 정자를 세우라고 하였다. 농한기에 미처 부사가 재목과 기와를 주어 새가 날아간 듯한 정자가 몇 날이 안되어 다시 서게 되었다. 정자가 이미 완성된 시기가 마쳐 추석을 당하였으므로 다시 정자에서 제수를 진설하였다. 이웃 사람들의 꿈에 송공이 남여를 타고 정자에 오르신 모습이 평상시와 같았다고 하였으니 어찌 이상하지 않은가.’⁵⁾

정자가 중건되자 다시금 전라도관찰사, 담양부사, 광주목사를 비롯한 호남 인사들의 정자 방문이 이어지고 여러 시문을 남겼다. 특히 정조 22년(1798년)에는 광주에서 道科를 거행했는데, 그 시험 주제를 송순의 회방연 때 정철 등 여러 문인들이 송순을 가마에 태워 정자에서 온실로 모셔간 일화를 주제로 한 ‘荷輿俛仰亭’으로 내기도 하였다. 당시 도과를 기념하여 왕은 송순의 8대손 송윤철을 무과에 특채하면서 인견입대시 면양정에 대해 친히 묻고 선무장군겸선전관에 제수하였다.

송순은 호남지역 문인 계보의 앞자리에 위치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 그가 지은 면양정은 생존시는 물론 송순 사후 건물이 재건된 이후에도 전라도 일대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인근 관리나 선비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으며, 왕실에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건물로 자리잡아 온 것이다.

3. 송순 생존시의 면양정 건물형태

면양정은 송순 나이 41세 때인 1533년에 창건되었다가 다시 나이 60세인 1552년에 크게 개축되었다. 창건시의 건물에 대해서는 단지 ‘초가 삼칸’이

5) 「면양집」 권 연보. 번역문은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國學資料院, 1998) p.446에서 인용

었다는 식귀만이 전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며 1552년 개축에 대해서 기대승이 적은 두 편의 「면양정기」가 전하고 있어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⁶⁾

기대승의 두 편의 「면양정기」는 하나가 전체 약 1570자 정도, 또 하나가 680자 정도이다. 두 편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나중 것이 앞의 기문내용을 다시 요약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두 기문 모두 작성 연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면양정이 개축되고 난 이후 가까운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편의상 내용이 긴 것을 「면양정기-A」, 짧은 것을 「면양정기-B」로 호칭하기로 한다.

우선, 「면양정기-A」의 전체 구성을 보면, 먼저 정자가 있는 지세를 설명하고, 이어서 정자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특징을 적고 정자 주변의 형세와 곁에 지은 부속건물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정자를 둘러싼 주변의 들판이나 인가의 모습, 물의 흐름과 각종 자연 경관을 묘사하였다. 마지막에는 송순 자신의 말을 빌려 이 집을 짓게 된 내력을 옮겨 적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건물의 형태와 특징을 언급한 부분만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정자는 세 칸으로 되었다. 긴 들보를 걸었는데, 들보 길이가 도리의 두 배가 되어서 그 안을 보면 반듯하고 텅 비었으며 단정하고 바르니 그 바르고 단정함이 더욱 드러난다. 사면을 비우고 난간을 둘렀다. 난간 밖은 지형이 조금 낮으며 서북쪽이 급하게 떨어졌다. 대나무를 뿔뿔이 심어 병풍을 두른 듯하고 곧고 긴 나무들이 질푸르고 무성하다. 그 아래 있는 마을을 암계라고 하는데, 주변 언덕에 돌이 많아서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런 이름을 얻었다. 동쪽 계단 아래 지세를 따라서 울타리를 두르고 온실 4칸을 지었고 주위를 담장으로 두르고 아름다운 꽃으로 담을 이루었다. 안에는 서책으로 가득 채웠다.”

(亭凡爲屋三間，駕長樑，樑倍於欄，故視其中，端豁方正，而其廉隅翼如也，虛其四面而欄檻之，檻外地形皆微隕，而西北陡絕，屏以密竹，蕭森蓊蔚，其下有村曰巖界，以其麓多石而峻削故名之，東階下，因稍迤之勢廓之，構

6) 면양정과 관련한 송순 생존시의 시문들은 정유재란 시 면양정이 소실되면서 모두 없어졌지만, 그 후 후손들에 의해 산질된 시문들을 수집해서 1654년 「면양정잡록」이 간행되었고 다시 1829년에 「면양정잡록」의 개간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654년 「면양정잡록」이 처음 편집될 때 고흥 기대승이 쓴 「면양정기」 두 편이 수록되었고 다시 1829년 개간 시에 당시 담양부사 심중량이 적은 「면양정기」가 수록되었다. 세 편의 「면양정기」 중 기대승이 적은 두 편은 송순 생존시 면양정을 개축할 때의 기록이며, 마지막 것은 소실된 면양정이 재건된 후의 기사를 실었다.

溫室四間，繚以周垣，槽以佳卉，而充之以書史，)

이 기사는 1552년 중창 시 면양정의 모습을 설명한 기록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면양정은 3칸 건물이고 대들보가 도리의 두 배 정도가 되며 실내는 평활 단정하고 텅 비었으며 사방이 트여있고 사면에는 난간이 둘러있다고 하였다. 또 동쪽 계단 아래로 온실 4칸을 두었는데 주변에 담장을 두르고 풀이 감싸고 있으며 안에는 서책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여기 나오는 온실은 연보의 회방연 기사에서 정철 등이 선생을 가마에 태우고 온실에 모셨다는 기사와 일치한다.

「면양정기-B」에서 건물 관련 부분을 옮기면,

“집은 삼칸에 사방이 개방되었으며, 그 서북 모서리는 심하게 가파르다. 뾰뾰한 대나무로 병풍을 친 듯하고 맑은 대와 곧은 나무가 질푸르게 무성하다. 동쪽 계단 아래 울타리를 치고 온실 네 칸을 짓고 꽃과 풀을 심어 낮은 담을 둘렀다.”
(爲屋三間四虛，其西北隅，極徒絕，屏以密竹，蕭穆悄蔭，東階下廓之，構溫室四檻，植花卉，繚以短垣。7)

이라고 하였다.

위 두 면양정기의 건물 기사를 요약하면, 면양정은 정면 3칸 건물에 사방이 개방되고 사면에 난간이 설치된 단정하고 네모 반듯한 집임을 알 수 있다. 정자는 우뚝 솟아 있고 주변 지형은 서북쪽이 크게 가파르며, 주위에 대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뾰뾰이 감싸고 있다. 면양정 동쪽 계단 아래는 따로 울타리가 있고 여기에는 4칸의 온실 즉 따듯한 방이 갖추어있고 온실 주변에는 꽃과 풀로 낮은 담장을 이루었으며 온실에는 서책들이 가득하였다.

특히 「면양정기-A」에서는 들보가 도리의 두 배가 된다고 구조 특징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전후 기둥 위에 긴 대들보가 걸려있음을 묘사한 기록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방이 비어 있고 난간이 둘러있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손님을 맞이하여 주변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쪽 계단 아래 온실이라는 건물은 온돌을 설치한 곳으로 판단되며, 이곳에는 서책이 가득

7) 「면양집」 권7, 「면양정잡록」에는 본문 가운데 「構溫室四檻」이라고 되었으나, 다른 기문의 내용이나 전후 관계로 보아 「四檻」(네 난간)은 「四檻」(네 기둥 또는 네 칸)의 오키로 판단되어 번역문을 고쳤다.

들어있다고 하였으므로 송순이 책을 보며 공부하던 곳으로 짐작할 수 있다.

4. 재건 이후 건물 형태의 변화

4-1. 현존 건물의 형태

면양정 건물은 처음 창건된 위치에 지금도 잘 남아있다. 건물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가 1653년에 재건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송순이 살아있을 때 갖추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 시설이나 세부 부재 가공에서 재건과 후대의 수리에 따른 변화 흔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실내 가운데 자리잡은 1칸의 온돌방은 송순 생존시에는 없었던 부분으로 보여서 재건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변화 부분으로 판단된다.

면양정이 서 있는 위치는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로, 송순의 선조가 자리잡은 기곡리에서 북쪽으로 1킬로미터가 못되는 지점이다. 정자가 있는 곳은 서쪽으로 제월봉이 급하게 경사져 내려오는 높고 평탄한 곳으로, 여기서 서쪽으로 영산간과 오례천이 만나는 두 물줄기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다. 이 위치는 「면양정기」의 지세 설명과 일치하며, 나아가 송순이 지은 “無等歌”에서 노래하는 면양정 위치와도 일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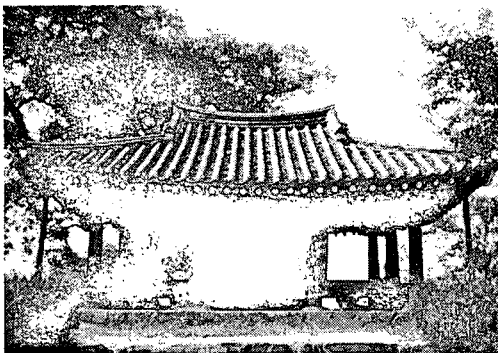


사진 1. 면양정 전경

건물은 높은 대의 서쪽 끝에 놓여있어서 정자 서쪽으로는 곧 바로 급한 경사를 이룬 낭떠러지가 된다. 이것 역시 기대승의 기문과 일치된다. 다만 현재의 면양정 주변에는 「면양정기」에서 말한 동쪽 계단 아래 있었다는 온실은 없고 또 일곽을 감싸는 울타리 시설도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정면은 동편 제월봉을 향하고 있고 뒤가 넓게 트인 농경지를 향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지세에 따른 진입 방향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건물은 한 단 높은 대지 위에 네모 반듯한 장방형으로 세워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단층 팔작 기와지붕의 익공을 갖춘 건물이다. 자연석 주춧돌 위에 두리 기둥을 세우고 기둥 머리에서 익공을 짜서 보머리를 받도록 한 일반적인 모습이다.

집의 짜임은 사방에 평주를 세우고 앞 뒤 기둥 사이에 긴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중보를 올리고 대공을 세운 일반적인 5량 가구이다. 좌우 측면 중앙 기둥 위에 충량을 올려 대들보 중간에 걸었다. 외벽에는 벽체를 가설하지 않고 모두 개방했으며, 실내 한 가운데 사방 한 칸 크기의 온돌방을 두었다. 온돌방은 서쪽 들판을 향한 곳만 판벽으로 막고 나머지는 두 짝으로 된 문을 달았다. 서쪽과 남북 절반에는 난간이 설치되었는데, 난간의 형상은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즉 서쪽은 난간대 사이를 판자로 막았고, 남북 쪽은 동자주 사이에 둥근 판재를 두, 세 개씩 세웠다.

건물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대들보를 건 방식과, 실내 한 가운데 설치한 한 칸의 온돌방, 그리고 익공의 형상이다. 들보를 건 방식은 「면양정기」에서 언급한 들보 구조와 일치한다. 가운데 온돌방은 「면양정기」에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이고, 익공의 형상은 현존 건물의 건립 연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건물의 대들보는 길이가 5미터를 조금 넘는다. 즉 16자 정도 된다. 반면, 어칸의 길이는 2.47미터로 8자 정도 된다. 따라서 대들보는 도리의 두배가 되는 셈이다. 이것은 「면양정기」에서 말한 ‘梁倍於楣’ 즉 들보가 도리의 배가 된다는 기사와 일치한다. 실내 한복판에 설치된 온돌방은 「면양정기」에는 없던 부분이다. 「면양정기」에서는 건물이 ‘端豁平正’ 즉 단정하고 튼튼했으며 평탄하고 바르다고 하고, ‘虛其四面’ 즉 사방이 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온돌방은 각 대들보 아래 두 개씩의 가는 기둥을 따로 세워서 여기에 판벽을 대고 문짝을 달아 설치한 것이다. 실내는 바닥을 전면 온돌로 꾸미고 낮게 천장을 가설했다. 기둥 위는 기본적으로 초익공에 속하는 가공을 하고 있지만 익공의 형상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기법도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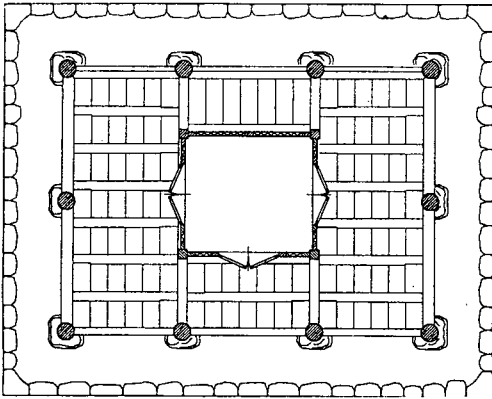


그림 2. 면양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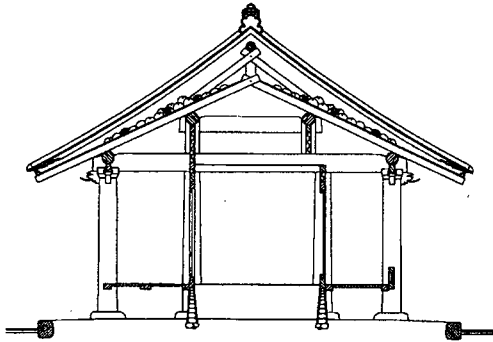


그림 3. 면양정 단면도

익공의 전형을 벗어나 있다.

우선 이 건물에서는 창방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각 기둥 위에는 전후 방향에 익공이 결구되고 도리 방향에는 첨차 하나를 두어 도리와 장여를 직접 받고 있다. 어칸 좌우 기둥 위 익공은 일반적인 쇠서 형태가 아니고 삼단으로 구분되는 형상으로 가공되었는데, 상단은 돌출한 판재 모양이고 중단은 짧은 날카로운 삼각형이고 하단은 완만한 앙서 형이다. 내부는 사절된 짧은 보아지로 되었다. 어칸 기둥 첨차는 하단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살미와는 다른 형상이며 첨차 몸체에 간단한 초각이 새겨져 있다. 귀기둥에서는 살미가 상부 장여와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일반적인 익공식과 다른 모습이며, 내부는 창방이 없으므로 내부 살미 끝에 소로를 올려놓아 장여를 받고 있다. 또 측면 기둥의 익공은 주두를 두지 않고 기둥 상부가 도리까지 연결되고 그 사이에 간략한 익공을 억지로 결구한 모습이다.



사진 2. 면양정 익공상세

면양정의 익공은 완벽한 익공 구조로 보기는 어렵고 정자와 같은 소규모 건물에서 흔히 보듯이 변형된 익공 수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시대적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18세기말이나 19세기초 경의 초각 수법을 보이는데, 귀공포의 경우는 17세기 중엽의 흔적도 일부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즉, 어칸 기둥 위 익공의 삼단으로 구분된 형상이나 앙서의 모습 등은 18세기말 이후의 변형된 익공으로 판단되며, 첨차 하단부의 완만한 곡선 처리나 귀공포의 장여와 분리되어 결구된 익공의 수법은 17세기 중엽의 흔적을 일부 보인다.

익공의 형상이 18세기말이나 19세기초의 시대 특징을 보인다고 할 때 이 건물이 크게 개수된 시기는 「면양정잡록」을 개간한 1832년에 비정할 수 있다. 송순의 후손들은 기곡리에 계속 살면서 송순의 시문들을 다시 모아 문집을 간행해 왔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벌어진 것이 건물을 재건했던 1654년이였다. 이 해에 건물 재건과 함께 「면양정잡록」을 간행한 바 있다. 「면양정잡록」은 다시 약 2백년 가까이 지나서 1829년에 개간하게 되는데⁸⁾, 아마도 이 시기에 낡은 면양정 건물을 전면 다시 중건하게 되었고 현재의 익공은 바로 이 시기에 다시 가공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는 것이다.

현재의 면양정 건물은 기본적으로는 송순 생존 시의 기본 구조를 계승하면서 후대에 온돌방을 들이고 이에 따라 난간 일부도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익공의 형상으로 미루어 현재의 건물은 최종적으로 18세기말이나 19세기초 경의 전면적인 보수를 통해 갖추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시기는 「면양정잡록」을 개간한 1829년으로 추정해

8) 「면양집」, 권7, 마지막 부분에 “면양정잡록”을 ‘崇禎紀元後四己丑, 開刊於潭陽錡谷齋室’ 즉, 1829년에 잡록을 개간했다고 밝혔다.

보았다.

4-2. 중재실의 조성시기

면양정 건물은 송순이 생존해 있을 때까지는 중재실이라고 부르는 온돌방이 없었고 그 대신 따로 정자 곁에 온실이라는 별도의 따듯한 방을 갖춘 집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것이 재건 이후 어느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중재실을 갖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면양정의 중재실은 과연 언제 설치되었는지가 이 건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중재실 설치시기를 말해주는 문헌 기록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건물을 둘러싼 상황을 검토해서 해답을 추정해 낼 수밖에 없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 글에서는 중재실의 설치시기를 1654년 재건 시로 추정한다.

면양정의 중재실은 대들보 아래 따로 기둥을 세우고 온돌방을 꾸민 것이므로 반드시 건물을 모두 해체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가능하다. 그러나 마루바닥을 뜯어내고 구들을 놓고 또 대들보 하부에 상당한 크기의 흠을 파서 기둥을 세우는 작업은 일시적인 수리로는 마무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공사이다. 따라서 이런 큰 공사가 시행될 수 있는 시기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본격적인 큰 수리시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중재실 설치시기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1654년의 재건 시와 현존 건물의 익공의 시대 특징을 반영하는 19세기초, 둘 중의 하나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재실 설치 가능성이 높은 것은 1654년 재건 시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첫째, 재건 시 별도로 있던 온실이 지어지지 않으면서 온실 기능이 정자 건물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고, 둘째, 송순 사후에 면양정에서는 매년 추석에 송순을 제사지내는 행사를 벌였는데, 이런 제사지내는 행사를 위해서 중재실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온실이라는 건물은 기대승의 「면양정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집은 정자 동쪽 계단 아래 있다고 했으며 집안에는 서책으로 가득했다고 하였다. 또 송순 회방연 즉 과거 급제 60주년을 기념한 술 자리에서 밤이 깊어 송순이 약간 취기가 있어 온실로 돌아가려 하자 정철 등 후배들이 그를 가마에 태워 온실로 모셔갔다는 기사가 있다. 따라서

이 온실은 정자 가까이 있으면서 온돌을 갖추고 있고 안에는 서책이 가득하여 송순이 평소에 여기서 책을 보던 곳을 알 수 있다. 정유재란으로 정자와 온실이 모두 불타 버리고 57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면양정을 1654년 재건할 때 이 온실은 재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면양정이 있는 곳은 앞에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높은 곳이다. 따라서 이 곳은 여름철에는 시원한 바람이 잘 불어 오겠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그대로 바람이 들이치는 한대와 같은 곳이다. 만약 재건 시 온실을 별도로 짓지 않았다면 사방이 개방된 정자만으로는 장기간 건물을 이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자 실내에 한 칸 온돌이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다.

또한 면양정은 송순 사후에는 지방 유지들의 방문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송순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이 때 사방이 텅 빈 건물보다는 한 가운데 방을 두고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향탁을 설치하는 방을 두는 것도 자연스런 요구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면양정의 중재실은 재건 시에는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중재실이 설치될 수 있는 또 다른 시점인 19세기초 즉, 현존 건물의 최종 건립 연대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중재실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정자로 유지하다가 이 때 와서야 중재실을 둘 당위성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중재실을 둔다면 더 이른 시기에 설치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19세기초에 와서도 여전히 중재실 없는 정자 본래의 모습을 유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초의 수리는 지붕 상부나 목조 가구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수리를 하면서 익공 부분을 교체하는 정도의 수리에 그친 것이고 이 때 와서 갑자기 중재실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면양정에서 본 중재실을 갖춘 호남지방 정자의 형성과정

5-1. 호남지방 유사 정자와 면양정의 비교

면양정과 같이 중재실을 갖춘 정자는 호남지방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이 지역건축의 한 가지 특징이다. 호남지방의 유사 정자와 면양정을 비교해 볼 때 면양정은 이런 유형 정자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의 특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는 일일이 그 수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자가 전 지역에 산재해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나주지역에만 현존하는 정자가 59곳, 문헌에만 나와 있는 정자가 106곳이며, 화순지역에는 현존 정자가 80곳에 문헌만 전하는 곳이 106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정자들은 제 각기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것이 가운데 1칸 온돌방을 갖춘 것들이며 이것은 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호남 지역 정자의 독특한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다.

호남지역에서 흔히 중재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가운데 1칸 온돌방을 둔 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면 크기를 3칸으로 잡고 있지만, 측면은 2칸 건물과 3칸 건물로 구분되며 또 내부의 구조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정면 3칸 측면 3칸에 내부에 고주 네 개를 세워 온돌방을 구성하고 외벽 위치에 평주 12개를 세워 각 평주에서 퇴보를 고주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 외에 면앙정처럼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하고 고주 없이 대량이 전후 평주 위에 걸리고 대량 아래 기둥을 세워 온돌방을 구성하는 것도 있고 또 이를 변형시킨 경우도 보인다.

이들 몇 가지 평면 규모와 구조 방식을 표로 정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중재실을 갖춘 정자들은 기본적으로 평면규모에서 측면 2칸 건물과 측면 3칸 건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조 방식에서는 고주 없이 대들보를 올린 형식과 고주 1개를 세우고 퇴량을 연결한 형식, 고주 2개에 앞뒤에서 퇴량을 걸구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상기 형식의 변형 사례가 많으며 특히 20세기 이후에 지어진 정자들은 변형된 구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각 형식과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A형식, 즉 정면 3칸, 측면 2칸에 대량을 걸구하고 대량 아래 작은 기둥을 세워 중재실을 꾸민 사례로 면앙정과 순창의 귀래정을 들 수 있다. 면앙정은 앞 뒤 평주 사이에 대량을 걸고 그 위에 종량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5량가 건물이며 측면에 종량이 걸구되어 있다. 귀래정의 경우는 통일되어있지 않은데, 정면에서 보아 어칸 왼쪽에만 대량이 걸구

된 전형적인 5량가이고 오른쪽은 고주 한 개를 세우고 고주에 퇴량을 걸구한 변형된 것이다. 귀래정은 초창이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물이지만, 현존 건물은 후대 여러 차례 개조되었는데 아마도 후대 수리과정에서 대량을 한 곳만 남기고 다른 쪽은 고주로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이 걸구된 사례는 두 건물 외에는 더 확인을 못하였다.

B형식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고주 하나를 세우고 고주에 퇴량을 걸구한 것으로, 측면 기둥 위에서 시작하는 종량이 종보에 적당히 걸리게 된다. 이 형식에 속하는 정자는 20세기 이후에 재건된 것이 많고 부재도 섬약한 편이고 퇴량의 곡선이 크거나 종량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등 변형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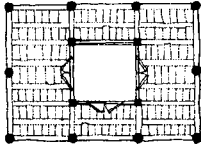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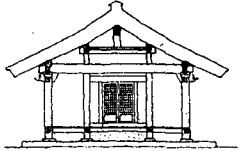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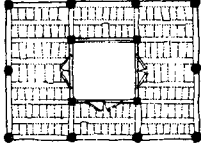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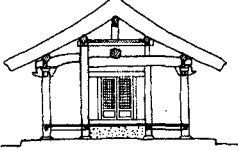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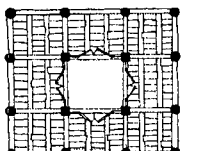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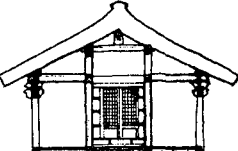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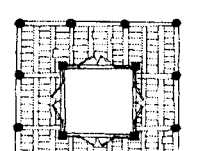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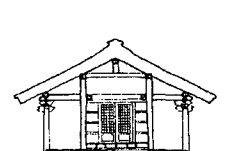
정면 3칸에 측면 3칸 건물 사례는 호남 전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구조 방식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C형식으로 분류한 한 가지는 퇴량이 정확히 고주에 걸구 되는 것, 즉 평주와 고주가 열을 맞추어 배열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 즉 D형식은 퇴량이 고주와 걸구 되지 않고 고주 안쪽의 인방에 걸구 되는 것이다. 이 때 고주는 평주보다 바깥쪽에 놓이게 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재실의 크기를 넓게 하려는데 있다. 앞의 사례로 담양의 광풍각, 고창 취석정이 대표적이고⁹⁾, 뒤의 것으로 나주 벽류정, 화순 송석정을 들 수 있다.¹⁰⁾

이들 여러 형식 가운데 중재실을 둔 정자의 가장 합리적인 형태와 구조는 C형식 즉 정면 3칸, 측면 3칸에 고주 2개를 세우고 평주와 고주 열이 맞추어진 형식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중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고주를 세우고 고주 주변에 평주를 세워 퇴량으로 고주와 평주를 연결시키는 개념이다. 이런 유형은 중재실 형으로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평면 규모가 중재실을 중심으로 사방이 유사한 크기를 갖추고 있고 구조방식에서도 중재실을 중심으로 구조의 틀이 짜여지기 때문이다. D형식은

9) 사례 가운데는 담양 광풍각이나 나주 벽류정 처럼 건립 연대가 17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물이 적지 않으며, 18세기 경에 건립된 정자에서도 여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자 형식은 17세기 이전부터 18, 19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중재실형 정자로 지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10) 현존 사례로는 비교적 후대에 와서 개축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건립 연대를 비정할 만한 사례는 확인이 어렵다.

표 1. 호남지방 중재실 형 정자의 여러 유형

유형	평면규모	구조방식	사 례
A			潭陽 俛仰亭(1532창건, 1552개축, 1654재건) 淳昌 歸來亭(1459창건, 후대 중건)
	정면 3칸, 측면 2칸	대량	
B			潭陽 鳴玉軒(1625창건, 후대 중건) 長興 舍人亭(15세기 창건, 20세기 중건) 和順 臨對亭(1860창건) 和順 富春亭
	정면 3칸, 측면 2칸	1 고주, 퇴량	
C			潭陽 光風閣(16세기창건, 17세기 재건) 和順 勿染亭(16세기창건, 20세기 재건) 高敞 醉石亭(18세기 창건) 井邑 松亭(1590창건, 20세기재건) 潭陽 松江亭(20세기 중건)
	정면 3칸, 측면 3칸	2고주, 퇴량	
D			和順 松石亭(1613창건, 1983중건) 羅州 碧流亭(1649창건, 1677중건) 羅州 七頭亭(19세기창건) 光州 浩歌亭(미상)
	정면 3칸, 측면 3칸	2고주, 퇴량	

* 사례는 현지조사 대상에 한함

여기서 중재실의 면적만을 확장하기 위해 고안된 결과이다. 이에 비하면 A형식은 중재실에는 적합한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대량이 결구 되어 있어서 대량 아래 방을 들이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또 중재실을 둘 목적으로 본 다면 굳이 대량을 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형식은 중재실을 두지 않은 일반적인 개방된 정자에는 알맞은 구조일 수 있지만, 중재실형 정자로는 합당한 구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A형식에 비하면 B형식은 C형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는 B형식의 건물은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 측면 3칸

을 만들기 어려운 좁은 대지에 정자를 재건하거나 공사비용을 줄여서 간략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각 유형의 사례는 조사가 제한적이고 호남지역의 해당되는 모든 건물을 확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각 유형의 발생 과정이나 전후 영향 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건물들 속에서 면양정이 갖는 위치를 고찰하는데 약간의 바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중재실을 갖춘 여러 정자들을 비교해 볼 때, 면양정은 중재실형 정자의 전형에 속하지 않으며 그 발생 초기의 유형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면양정의 형태는 그 건립 과정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초 정면 3칸의 사방이 개방되고 긴 대들보가 결구된 건물이었다. 그 실내 바닥은 전면 마루였다고 짐작된다. 이런 유형의 정자는 전국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조선초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건물이라고 생각된다.¹¹⁾ 면양정 역시 송순 생존시에는 그런 일반적인 정자의 형식을 빌려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정유재란의 소실을 거쳐 1654년 재건되는 과정에서 건물 뼈대는 옛 터에 맞추어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에 중재실만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형식의 발생 과정으로 본다면 전형을 이루는 C형식보다는 면양정과 같이 조선초기부터 널리 조성되던 일반적인 형태에 중재실이 삽입되는 형태가 더 앞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면양정은 전형적인 중재실형 정자가 건립되는 전 단계의 형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 호남지방 중재실형 정자의 조성 시기

16세기까지 사방이 개방되고 마루로만 되어있던 면양정은 17세기 중엽에 재건되면서 중재실을 갖춘 독특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면양정은 호남지방의 중재실형 정자 가운데는 구조방식에서 비교적 초기 형태에 속한다. 이런 점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재실을 갖춘 호남지역의 고유한 정자 건축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중재실의 설치는 온돌의 보급에서 비롯된다. 온돌이 보급되고 그것이 정자에 도입되면서 호남지방에서는 중재실이라는 고유한 방식으로 정착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온돌이 호남지방 사대부 계층 주택에 나타나는 것은 늦어도 16세기말 이전이다.¹²⁾ 「眉巖日記草」에 의하면, 16세기말 대체학을 지낸 柳希春은 해남에 자신의 살림집을 지면서 객청에 온돌을 갖추고 여기에 책방을 설치했다고 하였다. 면양정에서도 이미 1552년

건물을 개축할 때 정자 옆에 온돌을 구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온실을 지은 바 있다. 따라서 온돌은 이미 16세기에는 호남지방에서 사대부 계층의 살림집이나 관련된 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선비들의 정자의 경우, 16세기에는 온돌의 보급이 널리 보편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례는 우선 면양정에서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息影亭과 같은 담양권의 정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면양정은 앞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1552년 개축 시 정자는 바닥을 마루로 하고 사방을 개방한 형태로 조성하였으며 별도로 온실을 두고 있었다.

식영정의 경우도 지금은 실내 한쪽에 온돌이 설치되어있지만 16세기에는 온돌이 없이 실내 전체가 마루로 된 개방된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558년 석천 임영역이 지은 「息影亭記」에서 이 건물을 설명하여,

“시내 위 푸른 솔밭 아래 언덕을 하나 차지하여 조그마한 정자를 세웠는데,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복판을 비웠으며 지붕은 띠풀로 덮고 대발로 날개처럼 차양을 달았다.”

(乃於蒼溪之上, 寒松之下, 得一麓, 構小亭, 柱其隅空中, 苫以白茅, 翼以涼葦)¹³⁾

고 하였다. 즉 정자는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내부는 비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시기 즉 16세기에 호남지역의 일부 정자에는 온돌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사대부의 주택에 온돌이 도입되었고 면양정 옆에도 온돌을 갖춘 서재가 세워졌으므로 정자 자체에 온돌이 설치될 개연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¹⁴⁾ 다만, 그러한 실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면양정을 지은 송순은 담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관직에 올라 중앙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13) 「息影亭記」 원문은 여러 곳에 전하며, 여기서는 원문은 金東洙, “湖南地域의 樓亭調査研究(1)”에 수록된 기문에서 인용하였고 번역은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쇄원」(도서출판 발인, 1999) p.216에서 옮겼다.

14) 또한 16세기 영남지역 선비의 정자에서 이미 온돌 설치의 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즉 학봉 김성일이 안동에 세운 석문정의 경우, 그 기문에 의하면 실내에 동쪽 4칸의 마루 방 외에 “西二間爲煖室” 즉 서쪽 2칸을 온돌을 둔 따뜻한 방으로 꾸몄다고 하였다.(“石門精舍重修記”, “鶴峰先生文集”, 附錄, 卷4)

11) 나주 쌍계정은 전형적인 정면3칸, 측면 2칸의 대량용 건사방 개방된 정자이다. 이 건물의 창건은 고려말이며 현존 건물은 후대 여러 차례 개수를 거쳤지만, 비교적 창건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2) 李鎬淵,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건축역사연구』, 2호, 1992,12)

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 지냈다. 또 말년에는 면양정에 머물면서 부근을 지나는 많은 인사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나 송순은 이에 못지 않게 서울에서 오랜 기간을 관료로써 지냈고 또 지방 각지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전국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 지역 인사들과 교류를 가졌다.

송순은 29세에 서울의 독서당에 머물 때부터 서울 주변 경승지를 노래한 많은 시를 지었으며 주변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48세 때 경상도관찰사로 나가면서부터는 중앙 관직보다는 지방 수령으로 지내는 기간이 많았고 이 때에도 각지의 명승을 찾고 또 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혔다. 50대에서 60대 초 사이에는 개성부유수와 선산부사를 지내면서 이름난 정자나 명승지를 방문했고 많은 시를 남겼다. 이 때 영천의 明遠樓, 양산의 澄心軒, 안동 映湖亭, 밀양 嶺南樓 등 이름난 누각을 둘러보고 선산 梅鶴亭, 지례 無盡亭 등 많은 정자들을 방문했다. 개성부유수 시절에는 그 자신이 場巖亭 옛터에 새로 정자를 짓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송순이 교류를 가졌던 인사들은 호남지역 출신뿐 아니고 퇴계 이황을 비롯해서 영남이나 경기 지역의 여러 이름난 선비들이었다.

16세기 송순 생존시에 지어졌던 면양정은 그 형태가 어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기 보다 당시의 가장 일반적인 정자의 형태를 취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면 세 칸에 네모반듯한 평면을 취하고 사방이 개방되고 바닥을 모두 마루로 했으며 긴 대들보가 걸린 집이었다. 이런 형태의 정자는 조선초기 이래로 전국 어디서나 지어졌던 삼 칸 정자의 가장 보편 타당한 형태였다고 생각된다. 지금 남아있는 나주의 雙溪亭¹⁵⁾이나 안동의 三龜亭¹⁶⁾은 모두 창건 시기가 조선초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면양정 역시 이러한 조선초기 이래로 지어지던 정자의 일반 형태를 취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전국의 이름난 정자나 명승지를 방문하고

또 지역을 초월해서 전국의 이름난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가졌던 송순의 행적이 깔려있었다고 생각된다.



사진 3. 쌍계정 전경

사방이 개방된 식영정 건물도 이와 유사한배경 속에서 지어진 결과로 짐작된다. 식영정의 경우 대지가 좁아서 기둥 네 개만을 세운 소규모 정자로 지어졌지만 기본 형태는 조선초기 이래로 자리 잡았던 일반적인 정자의 형태를 따라서 사방이 개방된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식영정을 둘러싼 인물들 즉 소유주 霞棲堂 金成遠이나 石川 林憶齡 역시 그 당시에는 전국적인 교류와 유람을 하던 인사들이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호남지역의 인사들은 과거 처럼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관료를 역임하는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 학문적으로도 경기지역은 물론 영남지역 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던 16세기와는 달리 지역 안에서 주로 교류를 갖는 폐쇄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문화 전반의 지역 특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17세기 중엽에 들어와 면양정이 다시 지어질 때 그 형태는 과거와 달리 중재실을 갖춘 것이었다. 그 구조는 기존의 대들보를 걸친 삼 칸 정자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내부에는 전에 없던 온돌방이 들어섰다. 아마도 이 시기에 호남지방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자내부에 온돌방을 갖춘 집들이 조금씩 지어졌다고 짐작된다. 그리고 면양정처럼 과거에는 사방이 개방된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던 정자들도 서서히 중재실 형으로 변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면양정은 구조적으로는 호남지역 중재실 형 정자들 가운데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

15) 나주시 금안동에 있는 쌍계정은 고려말에 창건된 정자로 현재의 건물은 후대에 여러 차례 개수를 거친 것이지만 정면 3칸, 측면 2칸에 사방이 개방되고 긴 대들보를 걸친 전형적인 건물이다.

16)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삼구정은 1495에 창건된 정자이며 건물은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지만 기본 형태는 창건 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건물이다.

고 면양정이 이런 유형의 초기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면양정은 기존 건물 골격에 가운데 온돌방을 삽입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면양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16세기까지 전국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던 정자가 17세기 중엽에 와서는 이 지역 고유한 특수한 형태로 재건되었다는 점이다.

중재실을 갖춘 정자들은 아마도 초기에는 면양정처럼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긴 대들보를 건 불합리한 구조를 취하다가 점차 중재실에 가장 적합한 구조인 정면 3칸, 측면 3칸에 가운데 두 개 고주를 세운 전형적인 형태로 변모되어갔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결국 중재실을 갖춘 고유한 정자의 형태가 이 시점 즉 17세기 중엽에 와서 호남지역에서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이르러 소위 湖南歌壇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문학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문학에서 달성된 고유한 지역성이 한 시대를 지나서 건축에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글

면양정은 1533년에 창건되었다가 송순 나이 61세 되던 1552년에 본격적인 건물로 개축되었다. 「면양정기」에 의하면 그 건물 형태는 정면 3칸에 긴 대들보가 걸리고 사방이 개방되고 난간이 설치된 것이었다. 정자 가까운 곳에는 따로 온실을 두어 여기에 서책을 두고 송순이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장소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건물은 전란으로 소실되고 1654년 후손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그 후에도 한 두 차례 큰 수리가 있었던 곳으로 보이며 현재의 건물은 19세기 초의 세부 특징을 보인다. 현존 건물은 기본적으로 송순 생존시의 평면 규모와 구조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실내 한 가운데 한 칸의 온돌방을 둔 점이 달라진 점이다. 호남지방에서 흔히 중재실이라고 부르는 이 온돌방이 설치된 시점은 건물의 재건 과정에서 온실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점과 실내에서 거행되던 제사 의식 및 19세기 초의 수리 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1654년 재건시라고 결론 지었다.

호남지방의 유사한 중재실을 갖춘 건물과 면양

정의 평면 규모와 구조 방식을 비교해 본 결과 면양정은 중재실 형 정자의 초기 단계 건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중재실의 전형적인 모습은 정면 3칸에 측면 3칸 규모이고 내부에 고주 두 개를 세워 각 평주에서 고주에 퇴량을 결구하는 것이었다고 보았다.

중재실을 갖춘 정자는 호남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고유한 건축 형식이었다. 이러한 형식이 자리잡게 되는 시점은 17세기중반 경으로 볼 수 있다. 면양정을 비롯해서 16세기의 일부 사대부 정자들은 특정한 지역성을 나타내지 않는 일반적인 건축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것이 중재실과 같은 지역의 독특한 형태로 변화되는 시점이 17세기이며 면양정은 그러한 좋은 사례인 것이다. 이 시기 이후 호남지역의 정자는 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특성을 살려 나갔으며 이것은 호남지역 건축이 지역 고유성을 확산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정자와 같은 건물은 건립 연대를 비롯해서 건물세부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 진행한 논의에도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건축에서 선비들의 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무리한 추정을 무릅쓰고 하나의 시론을 펼치고자 한 것은 선비들의 정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비판이 벌어져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려는데 있다. 끝으로 면양정 건물을 실측하고 도면을 작성해 준 조선건축사사무소 尹大吉 소장께 감사를 표한다.

참고문헌

1. 「俛仰集」(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第46集, 민족문화추진회간)
2. 金東洙, “湖南地域 樓亭調査研究 (1) -光州·光山·潭陽·長城地域-”, 「湖南文化研究」, 第14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5. 8
3. 金東洙, “湖南地域 樓亭調査研究 (2) -羅州·和順地域-”, 「湖南文化研究」, 第15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5. 12
4. 金東洙, “湖南地域 樓亭調査研究 (3) -順天·昇

- 州·寶城·高興地域-”, 「湖南文化研究」第16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6. 12
5. 鄭益燮, 「改稿湖南歌壇研究」, 민문고, 1985
 6. 李鎬冽, “16世紀末 士大夫家 客廳 造營事例 研究”, 「건축역사연구」, 2호, 1992. 12
 7. 박언곤, 「누정조사연구」, 문화재연구소, 1995
 8. 「和順樓亭集」, 和順文化院, 1997
 9.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10. 천득염, 「한국의 명원 소재원」, 도서출판 발언, 1999
 11. 김봉렬, 「앞과삶의 공간」, 도서출판 발언, 1999

The building form of Myonang-jong and Its Regional Character

Kim, Dong-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bureaucrat-scholars, ruling class of the Choseon Dynasty, used to build small private pavilions for rest and study for themselv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Dynasty, the pavilions had plain shapes with rectangular plan and simple wooden structure without any walls so as to enjoy the surrounding scenery. From the 16th century, the building form began to change into some diverse one by putting in an *ondol* room, an unique floor heating equipment. The pavilions also began to show regional differences by placing the *ondol* rooms in the floor.

Myonang-jong, a pavilion occupied by a famous bureaucrat-scholar Song Soon, was built at Damyang of the southwest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o called *Honam* area, in 1533. At first, the building form followed the ordinary early pavilion shape using simple wooden structure and wooden floor. But when it was rebuilt in 1654 after burning down by war, there happened some changes. An *ondol* room was put in the center of the floor, of which regarded as a dominant regional characteristic of the *Honam* area. The change of the building form of Myonang-jong showed that it was the 17th century *Honam* area got the regional characteristic in the architecture of pavilion.